

# 민족교회의 “어머니신앙”과 바이블 우먼

최 은 주 \*

(e-mail: na2blue@hanmail.net)

---

## 목 차

---

1. 들어가기
  2. 캐나다 장로교회의 재일선교협력과 여성전도사
  3. 바이블우먼(Bible Women)의 유래와 교회 내 권력구조
  4. 성미와 “어머니신앙(オモニ信仰)”
  5. 나오기
- 

## 1. 들어가기

재일대한기독교회(在日大韓基督教会)는 1908년에 시작된 동경YMCA내 조선인 유학생 예배모임을 기원으로 하는 재일 한국인의 기독교 신앙단체이다. 교회의 명칭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민족교회’적 성격은 일본사회 내의 시선을 반영하는 기존의 연구동향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양현혜(梁賢惠)<sup>1)</sup>, 이이다 다카후미(飯田剛史)<sup>2)</sup>, 나카니시 히로코(中西尋子)<sup>3)</sup> 등의

---

\* 오사카대학 외국인초빙연구원

- 1) 양현혜(梁賢惠)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재일동포의 삶과 현실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면서 그 역사와 신학을 형성/전개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梁賢惠(1997) 「在日大韓基督教会の歴史と神学」 『アジアの宗教と精神文化』 新曜社. p.369-386頁
- 2) 이이다 다카후미(飯田剛史)는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둘러싼 민족과 인권문제에 주목하면서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론과 신자, 그리고 신앙의 복층성에 대해 지적한다. 飯田剛史(2002) 「在日大韓基督教会における民族と人権」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 世界思想社. p.263-304頁
- 3) 나카니시 히로코(中西尋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신도의 인터뷰를 근거로 인용하며 재일 교포 1세와 2세 사이의 민족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와 인식의 차이에 대한 고찰을 행하고 있다. 中西尋子(2007) 「民族と教会—在日大韓基督教会の事例」 『宗教を理解すること』 宗教社会学の会. p.50-79頁

고찰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과 함께 그 전제와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민족적 특수성이다.

그 민족적 특수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역사와 중첩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1세기가 넘는 역사인데, 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교회로서 존속하는 것을 가능케 한 기반이며, 그들이 자랑하는 민족적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1900년대 초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 안에서 재일 교포 1세로부터 2세, 3세로 이어지는 신앙의 세대 간 계승이 주로 재일교포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수식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점은 교회가 표방하는 민족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교회 내 신앙 선배인 재일 교포 1세 세대들의 신앙은 이른바 “어머니신앙(オモニ信仰)”으로 일컬어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머니신앙”이란 일본 사회 내에서 민족적 피억압계층으로 살아온 재일교포들의 신앙 형태를 구체화시킨 단어로, 교회가 내세우는 긴 역사와 전통의 표상으로서 유효하다. 다시 말해 “어머니신앙”은 말 그대로 그들의 어머니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재일교포의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신앙은 교회내부의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해 왔다.<sup>4)</sup> 따라서 본고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민족적 자긍심의 근원인 전통과 역사를 표상하는 신앙 선배이자 신앙적 규범이기도 한 “어머니신앙”에 주목하는 것은, 본 교회의 민족적 성격에 대한 구체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으로서 유효하며 동시에 민족성에 편중되어온 기존의 연구 성향에 대한 여성학적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sup>5)</sup>

4)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각 기념식이나 예배, 축사에서 자주 “우리 신앙선배들이 고난의 역사 안에서 일구고 지켜온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때문에 다음세대로 계승시켜야 할 신앙의 유산”에 대해 언급한다. 이렇듯 고난과 역경의 역사라는 배경 안에서 교회를 지켜낸 “신앙선배”들은 가족적인 구성과 신앙의 세대계승을 특징으로 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내부에서 신도구성원의 아버지/어머니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신도의 비율이 전체의 2/3이상을 유지해왔던 이유로, 신앙선배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로 환원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앙선배들의 신앙의 형태=어머니신앙은 교회 내부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비가시화된 영역으로 존재하나, 신도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교회의 신앙계승이라는 과제를 동기부여라는 형태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장치가 되고 있다.

5)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대상으로 한 여성학적 고찰로서 함미라(咸美羅)/오수혜(吳壽惠)의 논고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교회의 역사와 현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교회를 지탱시킨 여성의 존재와 그 모습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수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해방 이전의 역사에 주목하여 교회에서 활약했던 역사 속 여성과 그 활약을 발굴해내고 있어 여성사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드러내어 발굴하는 작업이, 존 스콧이 지적하듯 기존의 역사주체가 가지는 주역성(主役性)을 보다 강조해 버릴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위의 여성학적 고찰은 본고에서 설정한 민족의 문제에 대한 여성학적 문제

본고에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민족적 자긍심이 그 역사와 전통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교회의 1920년대 후반에서 1934년의 “재일본조선기독교대회(在日本朝鮮基督教会大会)”창립에 이르는 시기에 주목한다. 이 시기의 재일교회는 조선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 엘리트층의 민족적 거점으로서의 역할<sup>6)</sup>에서, 생활의 곤궁을 계기로 일자리를 찾아 일본 노동시장의 저변층으로 유입/ 정착해야 했던 노동자층의 신앙 공동체로 변용되어갔다. 또한 1927년의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사파견과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조직교회화가 가능해진 시기로서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실질적 기반이 정비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기원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당시 재일선교를 도왔던 캐나다 장로교회의 재일선교보고서(Mission to Koreans in Japan) 안에서 “바이블 우먼”으로 기록되고 있는 여성들에 주목하여 그 존재의 의미와 위치를 “어머니신앙”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바이블 우먼”으로 명명된 여성들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신앙”의 근원적인 기원과 그 개념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본 교회의 “어머니신앙”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역사 속의 여성과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 내부의 젠더구조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때, 오늘날의 “어머니신앙”이라는 개념이 보다 명확해 질 것이며, 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현재와 그들이 표방하는 ‘민족’의 문제에 대한 여성학적 문제제기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2. 캐나다 장로교회의 재일선교협력과 여성전도사

1908년의 조선인 유학생 정기에배를 기원으로 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는 YMCA와는 별개로 동경교회를 설립하고 조선에 목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제기로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동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威美羅(2008) 「教会における女性のミニストリー—在日大韓基督教会を中心に」 関西学院大学大学院神学研究科修士論文、吳寿惠(2009) 「在日朝鮮基督教会の女性史研究」 同志社大学大学院神学研究科博士論文.

- 6) 조선에서 온 유학생을 주된 신도 층으로 했던 당초의 재일교회가 3.1 독립운동의 준비 작업이 행해진 장소로서 국권회복을 목표로 선두에 섰던 조선인 엘리트층의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확인된다. 織田樺次(1977) 『チゲクン—朝鮮・韓国入道の記録』 日本基督教団出版社.p.130頁、金贊汀(2010) 『韓国合併と「在日」』 東京:新潮社. p.38-41頁

한다. 그 요청에 의해 1909년 10월에 조선예수교 장로교 독로회의 한석진(韓錫晉)목사가 파견되었다. 한목사의 3개월간의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게 된 재일교회는 1912년 조선 예수교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합의에 의해 결성된 “조선연합예수교회”의 지원을 약속 받아 양 교회로부터 2년 교대로 목사파견의 선교협력을 받게 된다.

이후 1924년 9월의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한국기독교회협의회의 전신)의 발족으로 연합공의회로 이어진 재일선교지원은, 1927년 캐나다장로교회 선교협력 결정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캐나다 장로교회소속 루사·리스거·영(Luther Lisgar Young) 선교사가 22년간의 조선체제를 거쳐 일본 고베로 파견된다. 영 선교사는 192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 인구가 급증하고 그 중 여성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sup>7)</sup>, 1893년의 “선교사 공의회”가 정한 선교정책<sup>8)</sup>에 의거한 선교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재일선교는 교회수와 신도수가 동시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고, “재일본조선기독교회대회(在日本朝鮮基督教會大會)”가 창립된 1934년에는 일본전국에 45개의 교회와 2300명의 신도가 확보되었다. 재일교회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한 성장 배경으로 재일조선인 노동자층 인구의 급증과 이에 동반한 여성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선교사 공의회의 선교정책에 기초하여 추진된 캐나다 장로교회의 ‘여성과 어린이’를 시야에 넣은 유치원과 야간학교 설립이라는 선교방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로 “바이블 우먼”이 있었다.

그녀들은 캐나다장로교회가 재일선교를 결의한 당초부터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그 출발점에 있었던 조선인 크리스천 여성이다. 1927년부터 전개된 영 선교사의 재일선교는 3명의 외국인선교사와 함께 2명의 바이블 우먼으로 구성된

7) 1920년부터 1930년의 10년간, 재일조선인은 약 6배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 여성 인구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1920년, 일본전국에서 26,505명이었던 재일조선인 비정주자 수치는 1925년에는 105,909명, 1930년에는 158,628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여성 한 명에 대한 남성비율을 살펴보면, 1920년에 7.7이었던 것이 1925년에는 4.8, 1930년에 2.62로 증가하며, 그 안의 단순노동자의 비율은 각각 89.16%, 94.09%, 93.26%이다. 外村大(2004) 「全国および主要道府県における在日朝鮮人の職業の構成比」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 緑蔭書房. p.83~84頁, p.91頁. p.93頁

8) 조선의 선교정책은, 1893년 “선교사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그 정책의 내용은, 1-전도목표는 근로계급, 2-모성은 차세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여성선교와 청소년교육을 특별 목적으로 한다, 3-기독교 교육에 의한 조선인 교역자 양성, 4-교회의 자립과 자치를 강조, 5-성서중심의 한글 문서 활동에 의한 선교, 6-의료사업에 의한 선교, 로 요약된다. Vinton.C.C(1893)“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k, JIX-9, p.671

5명으로 출발했으며, 이 중 2명의 바이블 우먼은 캐나다 선교부 대표단이 직접 조선에서 선출하여 일본으로 파견했다<sup>9)</sup>고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주된 활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단이 선교 개시 시점에서 이 여성들을 조선을 직접 방문/선출하여 일본으로 파견하고 있는 것은, 그녀들의 존재가 재일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들의 여러 활동 가운데 당시 재일조선인 교회 내 “바이블 우먼”의 주된 활동내용으로 언급되는 것은 가정방문이다. 불안정한 비정주자를 대상으로 했던 재일선교에 있어 가장 적절한 선교방식이었던 가정방문은 영 선교사 자신도 가장 효과적이거나 또한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은 가정방문의 중요성을 언급한 영 선교사의 기술이다.

우리들은 비신앙자와 만나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에 여러 방법을 써서 모임을 가질 기회를 만드는 일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는다. 성령은 이런 모임을 통해 명확하게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하신다. 그런 움직임 가운데, 조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교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의 하나이다.<sup>10)</sup>

또한 당시 나고야교회의 “바이블 우먼”으로 활약했던 심은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제가 활동하던 때의 나고야교회는 매우 바빴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왔지요. 방문전도지요. 박상동목사가 “원방의 전도강연”의 날을 정해 전도로 매우 바빴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중략) 목사님과 전도사들의 대단한 전도 열심으로 교회성원들도 매우 열심이었어요.<sup>11)</sup>

9) 1929년도 캐나다장로교회 조선선교 보고서에서는 재일선교초기의 두 명의 바이블 우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이 교회의 유명한 협회장인 Strachan여사가 1927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여성과 그 아이들에 대한 선교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협회가 바로 그들을 위해 두 명의 바이블 우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우리들은 바로 조사를 시작하여 결국 두 명의 유능한 여성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명은 조선의 장로교 중심지인 평양 출신이고, 다른 한명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 출신이었다.”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29)“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60

10)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Toronto(1934) “The Glad Tidings”: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Wendy Chun(2006) 『外国人宣教師の足跡』在日大韓基督教会関西地方会女性部主催 『2006年度関西地方会女性部連続講座 宣教100周年に向けてのビジョン』 p.17頁

11)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 나고야교회에서 1935년부터 1938년까지 바이블 우먼으로 활동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인 영이 말하는 조선인전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식, 즉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설교를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바이블 우먼”이었다. 외국인 남성 목사 대신 동족의 여성이 빈곤과 차별로 힘겨워하는 조선인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유일한 구원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 혹은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방문은 그녀들의 주된 역할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방법이야말로 이후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기원이 되는 “집의 교회(家の教会)”<sup>12)</sup>, 즉 개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그 집을 기점으로 하며 가족적인 교회라는 특징으로 민족적 색깔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중요한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정방문을 비롯하여 “바이블 우먼”들의 전도활동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주된 전도 방책으로 내세운 유치원과 야간학교의 운영과 교사역할에 이르고 있다. 이 여성들은 사회의 저변층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고 여성과 어린이전도에 주안점을 두었던 캐나다장로교회의 전도방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문전도를 도왔던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일교회의 성장과 조직화를 이끈 캐나다장로교회의 선교협력 시기에 표면화되지 않는 존재로서 그 선교를 지탱시킨 장본인들이었다 할 수 있다. 그녀들은 교회 내 직분으로 보면 목사 아래 위치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칭호를 얻지는 못했다. 선교초기부터 그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고 캐나다로 보내는 선교보고서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 요청을 강조했던<sup>13)</sup> 캐나다 선교사들

했다. 日本基督教団中部地区愛知西地区靖国神社問題特設委員会編(1998)『愛知県下における「朝鮮基督教」の歩み—戦時下を語る証言に聞く』在日大韓基督教会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 (RAIK). p.143頁

12)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자화상 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 “집의 교회(家の教会)”라는 표현은 1973년에 발표된 ‘선거기본정책’ 안에서 공식적으로 수립된 구체적인 선교방책이다. 이는 해방 이전의 가장 일반적인 선교방식을 1970년대의 정세기에 있어 선교확장의 중요한 방책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동포사회에 밀접한 ‘민족교회’형성을 의도했던 결과로 간주된다. 이처럼 ‘집’을 거점으로 활용한 교세확장이야말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방식이면서, 동시에 이는 본 교회의 ‘민족교회’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자화상으로서 “집의 교회”라는 표상에 관해서는 미국 침례교 선교사가 증언하는 이하와 같은 기술이 참고가 될 것이다.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온 이들이 모두 기독교인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은 훌륭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조용히 한 사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허락된 빈곤한 장소에 머무른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절대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그 2층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되어, 그곳이 바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온화하고 친밀해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J·A·フット, 宇治郷毅(1976)「戦時下の在日朝鮮人キリスト教運動」『福音と世界』新教出版社. p.53頁

13) 영선교사가 바이블우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파견을 요청한 기록은 캐나다장로교회

은, 그녀들을 “(여성)전도사”가 아닌 바이블 우먼이라는 직분명으로 표기하고 있다.<sup>14)</sup>

### 3. 바이블 우먼의 유래와 교회 내 권력구조

캐나다장로교회 재일조선인 선교 보고서 안의 “바이블 우먼(Bible Women)”이라는 명칭은 조선에서 유래한다. 재일 조선인 선교에 책임자로 파견되었던 영 선교사는 22년의 조선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블 우먼”들의 필수 불가결함을 자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비롯된 조선 선교 초기 “바이블 우먼”의 출현 배경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바이블 우먼은 구미 선교사들의 조선 선교 초기부터 출현하는데, 이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언어적 장벽과 함께 당시의 내외법이라는 엄격한 남녀구별의 풍습에 기인한다. 남성인 그들은 내외법에 의해 조선인 여성을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부출입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조선인 여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를 도와줄 동족 여성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다음은 당시 조선에서 활약했던 외국인 선교사의 증언이다.

동방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조선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직접 보며 말을 건네는 것은 좋은 예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여성이 아니면 토착전도자가 여인을 직접 마주보며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전도하면 기독교 운동에 이롭기 보다는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선에서 이러한 여성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부인들을 최선을 다해 훈련시키

---

선교보고서 안에서 자주 나타난다.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0)“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102,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1)“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52,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2)“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67

14) 본고에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중요한 자료로 간주하는 캐나다장로교회 재일선교보고서에 기인하여 “바이블 우먼”이라는 명칭에 담긴 제국주의적/남성 중심적 시선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 이하 재일교회의 여성전도사를 바이블 우먼으로 표기한다. 이는 캐나다장로교회 외국인 선교사라는 외부의 시선에서 그녀들이나 당시의 교회를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제국주의적 시선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아 당시의 교회와 여성의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다.

고 있으며, 같은 여성들에게 순복음을 전하도록 충분히 무장시켜 파송하고 있습니다.<sup>15)</sup>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내외법 안의 기독교 운동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이블 우먼이었고, 여성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 의해 그녀들은 충분히 훈련받아서 파송되고 있었다. 이 증언에서 바이블 우먼의 출현 배경이 그 존재가 가지는 전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녀들의 존재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이하와 같이 인식되고 있었다.

본래 내외가 심한 조선 땅에서 설교를 하되 짓눌린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은 선교사들은 조선의 풍습에 익숙치 못한 자신들에게 말과 풍습을 가르쳐주며 순회전도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보다는 혼자 사는 나이 많은 부인이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부담이 없었다.... 이들은 기독교에 의한 새로운 삶을 소유한 자로써 남을 감화시키며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해 주는 지도자로서의 첫 직업 여성들이요 처음 여성지도자들이었다.<sup>16)</sup>

우리 조선에서는 남녀를 구별하는 풍속이 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부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의 희생적 사업이 위대하다고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풍속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여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보다 나은 것인 즉 전도부인의 사업하는 방법은 형편대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전도부인은 언제든지 필요할 줄 압니다.<sup>17)</sup>

이렇듯 바이블 우먼은 조선의 말과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선교사와 내외법 안의 기독교운동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전략으로서 출현한다. 여성 전도를 위해 이 직분의 성별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했으며, 이는 외국인 선교사의 보좌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당시 조선에서 바이블 우먼은 시대와 교단에 따라 “여전도인”, “전도부인”, “부인전도사”, “여자전도사” 라는 식으로 그 명칭이 다양했다.<sup>18)</sup> 명칭의 다양

15) Annie Oakes(1915) “Woman’s in our mission station Korea”: OMS. No.V. p.8

16) 주선애(1978) 『장로교 여성사』 대한예수장로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p.54.

17) 「한국감리교회회보」(1934년 10월)

18) 바이블 우먼의 명칭은 교단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감리교회의 경우 1920년대에는 여전도인, 1930년대에는 전도부인, 1940년대에는 부인전도사의 명칭이 쓰여졌다. 한편 장로교회의 경우, 1905년부터 1929년까지는 여전도인 외에도 부인전도인, 여자조사, 1930년대 이후에는 여자전도인, 여자전도사로 기록되어있다. 성결교회는 창립 이래 1945

성은 이 직분이 교회 내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기독교의 만민평등과 구원의 교리가 봉건적 체제와 가부장제 안의 피억압층인 여성을 비롯한 하층계급에 ‘해방’적인 측면을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선교는 매우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문명사회의 시선에서 미개사회인 조선을 기독교 교리로 개화시킨다는 논리로 전개된 복음의 전파는 쇄국정책을 편 조선에 문호개방을 재촉한 침략주의적 진출에 의해 시작된 것이며 그 선교활동 또한 같은 문맥 위에 위치한다. 서양인 남성 선교사를 정점으로 하는 서양/남성중심주의적인 선교활동 안에서, 첫 직업여성이자 첫 여성 지도자의 존재는 그 성별 때문에 선택된 것이었다.

다음 문장에서는 당시의 바이블 우먼의 주된 활동의 내용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그녀들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한 자기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 이십년 동안 여전도인의 책임을 하였습니다. 여전도인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걸네”라구요... 알는 집에서 기도하고 초상나면은 럽장이 노릇하고 순산하는 분에는 조산부 산파되고 경성을 포위하여 삼사십리 식 나가서 촌교회가서 가정학이란 과정, 아해 기르는 것, 성경, 국문 등을 가르치고 혼인집 장사집 락심한 집 두로 단이는 책임이 걸네와 갓슴이다. 그런니 걸네 엮는 집안은 깨끗지 못합니다.<sup>19)</sup>

바이블 우먼에게 부가되는 임무와 그에 대한 그녀들 스스로의 위치규정은 “걸레”라는 별명으로 표상된다. 가정 내 대소사에 “걸레”처럼 임하여 그것을 전도의 방법으로 삼은 그녀들의 직분에 부가된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한 조선 선교초기부터 출현하여 1920년대부터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바이블 우먼의 임금은 남성목사의 20-30%에 불과했다.<sup>20)</sup> 실질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조선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 존재의

년까지 전도부인이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19) 「기독신보」(1930년1월1일자)

20) 바이블우먼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남성목사의 20-30%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 조선 감리교의 중서부 연간통계(1931년-1932년)에 의하면 바이블우먼의 임금은 교단과 지역, 시기에 따라 남성목사의 2/3부터 1/12의 큰 격차가 나타난다. 이런 일부의 통계로 당시 조선의 바이블 우먼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녀들의 사회적/교회 내 위치를 고려할 때 남성목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이블우먼의 임금이 당시의 남성목사뿐만 아니라 남성전도사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을 지적하는 이하의 연구자료 또한 참고가 될 것이다. 송종인(2003)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 연구 :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의미와, 걸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도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했던 바이블 우먼의 사회적 평가가 반드시 적절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별명에 축약되는 것처럼 그녀들의 주된 임무와 그 역할은, 예를 들면 전술한 감리교회가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희생적 사업’일 것이다. 바이블 우먼은 이를 “걸레”라는 표현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걸레가 없는 집은 깨끗하지가 않다”고 단언함으로써 이 직분에 부합되는 ‘희생’에서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가 재일선교 참가를 결의하고 영 선교사 부부와 함께 바로 두 명의 바이블 우먼을 선출하여 파견한 것은, 이미 조선에서 정착된 직분이었던 바이블 우먼의 출현배경과 주된 임무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저임금, 사회적 인식과 지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존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여성전도사가 아닌 “바이블 우먼”으로 명명하였던 것은, 직분의 불안정함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에게 의무 지워진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의도한 것이었을 것이다.

영 선교사 부부와 함께 가장 처음 파견된 두 명의 바이블 우먼은 평양과 서울의 성서 연구반(Bible Institute)<sup>21)</sup> 출신이다. 1910년도의 평양성서연구반의 교과 과목은 아래와 같다.

교과목	내용
성경	구약, 예수의 생애, 누가복음, 야고보서, 사도행전, 출애굽기, 마태복음, 다니엘서, 고린도전서 등
이론 및 교리	성서지리, 교회사, 감리교 교리문답
기타	위생, 음악, 자녀교육, 산수, 병간호법, 사무 보는 법, 음식준비법 <sup>22)</sup>

21) 바이블 우먼의 양성교육기관으로서 1897년에 미국감리교회에 의해 조직된 성서반(Bible Class)과 보다 체계적인 것으로 1905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성서연구반(Bible Institute), 보다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는 성서학원(Bible Training School)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성서연구반이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바이블 우먼 양성기관이었다 추정된다. 재일교회 초기의 두 명의 바이블 우먼의 출신 교육기관에 관한 기록은,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29)“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61

22) Course of study and rules of admission of the pyongyang presby(1910) “Women’s Bible Institute”: K,M,F, 허연숙(2005) 「초기감리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1885-1935」 숙명여대 석사논문. p.53에서 재인용.

“기타”로 분류된 교양과목의 비중은 전체의 30%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불법적 성의 역할 분담은, 그러나 바이블 우먼의 실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도 했다. 여성신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녀들은 여성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고, 또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교회 내의 역할에 충실 하려면 위와 같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여성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자녀교육이나 음식 준비법 등의 젠더 노동이 바이블 우먼의 전도활동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했던 것이다. 이는 이하에서 논하는 젠더적 권력구조를 기초로 한 교회 내 질서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블 우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여성신도 지도가 있다. 원래 그녀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인재”<sup>23)</sup>로 선발되었으며, 캐나다 장로교의 주요 선교방책이었던 유치원과 야간학교의 지도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 활동을 했다. 여전도회의 결성과 운영 또한 그 지도자로서의 임무 중 하나였다고 간주되는데, 이는 영 선교사의 1931년 캐나다 선교보고서에서 확인된다. 그는 선교보고서 안에서 유치원과 야간학교, 일요학교와 함께 여성조직(Women’s organization)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 전국 7개구 가운데 바이블 우먼이 있는 큐슈, 고베, 나고야, 오사카 지구에서만 여성조직이 결성되었고, 바이블 우먼이 없는 교토, 도쿄, 홋카이도 지구에는 결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은 여성조직이 결성되지 않는 교토 지구를 설명하면서 이곳에 “바이블 우먼이 필요하다”<sup>24)</sup>고 지적하고 있다. 이듬해 여성조직은 Women’s societies로 재일교회 교세보고 통계에 나타나는데, 1933년부터는 Women’s missionary societies로 보다 본격화되어 그 숫자가 19개소에 달하고 회원수도 412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 여성연합회가 그 기원으로 삼고 있는 “여전도회”의 결성이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도방식이었던 가정방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이블 우먼은 교회 내 실질적 여성 지도자로서 여전도회를 이끌고, 여성신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일선교의 최전선에서 교회 내 여성들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교회전체를 시야에 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여성 지도자들이 기독교 복음에 의한 여성 해방적 측면을 가지면서도

23) 주 7 참조.

24) 1931년의 캐나다 장로교 선교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교토지구: 한 명의 현지인이 주일과 평일 봉사를 하는 세 개의 그룹, 두 곳의 어린이 주일학교와 전도회, 한 곳의 야간학교를 돕고 있다. 바이블 우먼이 한 명 필요하다.”-“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1)“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52

당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본래 바이블 우먼이란 서양인 선교사의 보좌역으로 출현했고 이후의 교육과 사회적 평가도 그 본래의 역할이 가지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회 내 유일한 여성 지도자의 존재가 가지는 남성 선교사의 ‘보좌역’으로서의 한계는 바로 교회 내 여성신도가 처한 한계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바이블 우먼”이라는 명칭에 내재하는 제한과 한계성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같은 명칭으로 균등화된 재일조선인교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는 바이블 우먼들이 여성신도들의 실질적인 지도를 담당했던 점과 연계시켜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재일 조선인 교회는 선교사과건과 재정적 지원으로 선교에 가담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협력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선교협력 시기에 형성된 교회 내 권력관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할 것이다. 조선을 비롯한 동양제국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선교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재일교회의 경우 구미의 남성선교사를 정점으로 한 교회 내 계급질서 형성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이블 우먼과 그녀들의 위치이다. 외국인 선교사의 보좌를 본래의 임무로 하는 바이블 우먼, 즉 조선인 크리스천 여성을 조선에서 재일선교의 장으로 데려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또한 그녀들을 여성전도사가 아닌 “바이블 우먼”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선교사와 바이블 우먼 사이의 권력관계, 서양인/남성/목사와 그 보좌역으로서의 동양인/여성/신도의 명백한 상하관계 구축은 재일교회내의 계층질서의 형성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블 우먼은 서양인 남성 선교사와 조선인 남성목사, 조선인 남성 전도사의 다음 단계, 다시 말하자면 일반신도를 제외한 교회 내 권력구조의 가장 최하위에 위치하게 된다.

#### 4. 성미와 “어머니신앙(オモニ信仰)”

재일대한국교회 여성신도들의 모임인 “여전도회”는 1933년 결성 이후 점점 조직을 확장시켜, 결성 이듬해인 1934년에는 일본전국에 30개의 여전도회와 651명의 여전도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여전도회의 확장에 따른 교회에의 기여 정도는 결성 다음 해인 1934년에 이미 여성전도사와 유치원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회의 경제적 자립에 일조하고 있다는 기록<sup>25)</sup>에서 유추 가

능하다. 그와 관련된 여전도회의 기록으로 1934년 캐나다 장로교회 월간회보에 서는 이하와 같은 기술이 나타난다.

여전도회는 스스로 나서서 돕고 있다. 어떤 여전도회에서는 전 회원이 자유 헌금 외에도 매식 한 수저의 쌀을 바쳐, 주일에 모아 판매한 돈을 여전도회 회계로 건넨다. 이는 쌀이 부족한 조선인들의 진정한 희생이다.<sup>25)</sup>

재일대한국교회에서 해방 이후까지 전통으로 계승되어 온 “성미”의 첫 기록이다. 각 가정에서 밥을 짓기 전에 한줌씩 쌀을 모아 교회로 가지고 가던 이 헌납방식은 1980년대까지 계승되었다. 성미란 가사노동의 담당자였던 여성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나타낸 신앙 표현이다. 외국인 선교사는 이 쌀을 “조선인의 진정한 희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는 “조선인 여성의 희생”이다.

이후 약 50여년에 걸쳐 재일대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성미가 “어머니신앙(オモニ信仰)”의 구체적 표현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은 이 신앙표현이 다름 아닌 부인회의 영역에서 전통화되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 이후 부인회는 1933년에 결성된 여전도회를 그 기원으로 발족하고 있고, 성미는 그런 기원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해방 이후 부인회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부인회의 전통이었던 성미가 신앙의 세대 간 계승을 특징으로 하는 재일대한국교회 안에서 바로 “어머니신앙”과 결부되어 논해지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신앙”이란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재일 1세의 삶과 신앙을 함축시킨 거대한 메타포이다. 민족교회적 근거를 그 역사에서 찾아온 재일대한국교회의 존재양식은 고난과 역경으로 수식되는 재일교포 1세의 삶과 신앙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재일교포 1세를 표상하는 ‘어머니’란, 재일교포들의 일본 정착 과정 안에서 겪어온 차별과 억압을 상징하고, 그 고난 때문에 더욱 빛나는 신앙의 자세를 표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신앙”에는 상실의 위기에 선 민족성과 경제적인 궁핍, 민족적인 차별과 억압의

25) 영 선교사의 1934년 재일선교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여전도회와 그 보좌단체가 바이블 우먼과 유치원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의 모든 여전도회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에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4)“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35

26)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Toronto(1934) “The Glad Tidings”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269

역사, 그 때문에 더욱 숭고해져야 하는 신앙의 계승이 함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의 출발점과 기초로 설정된 “어머니신앙”이 민족과 그 역사를 표상하는 ‘어머니’라는 단어로 교회 내 젠더적 불균등에 있어서 큰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머니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성미라고 할 때, 이 신앙표현의 정신은 외국인 선교사가 지적하듯 바로 여성의 ‘자기희생’이다.

그렇다면 성미를 구체적 표현방식으로 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신앙”과 교회 최초의 실질적 여성 지도자로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 “바이블 우먼”으로 명명되었던 여성전도사들은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 것일까? 다음은 당시 조선의 기독교잡지인 「신학세계」 1938년 5월호에 실린 “여전도사론”이다.

여전도사는 마리아적 감화력을 가지고 소년, 청년, 장년, 노년은 물론, 종교적 정조와 인간의 신에 대한 의무를 마음에 붙여넣는 역할에 있어 필요하다. (중략) 우월감을 버리고, 거만함을 버리고, 그저 사랑과 겸손과 온화한 정서를 가지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와 비교해 여자 쪽이 봉사의 선단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모성애를 가지는 여자가 인민을 구제하고 기독교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는 보다 빨리 확장하고, 진보할 것이다.<sup>27)</sup>

여성을 본질 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위의 “여전도사론”이야말로 서양인 선교사들의 보좌역으로 출현하여 이른바 “바이블 우먼”으로 명명되었던 여성전도사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 시선이었을 것이다. 재일조선인교회라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장에 있어서도 여성전도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바이블 우먼”이라는 명칭으로 양 공간이 동질화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유추 가능하다. 서양인 선교사의 파견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선교와 그 조선을 경유하여 형성된 또 다른 공간으로서의 재일교회의 장이 이질적이면서도 그 영향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의 문장과 성미의 정신이 연계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전도회의 신앙표현에서 비롯하고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조선인의 진정한 희생’으로 표상된 성미는 원래 조선으로부터 유래하며 당시 여전도회의 실질적 지도자는 여성전도사들이었다. 그렇다면 서양인 선교사에 의해 “바이블 우먼”으로 기록되는 이 여성 지도자들의 교회 내부/사회적 위치와 성미라는 신앙표현이 가지는 젠더적 한계는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조선인의 진정한 희생’으로 표상된 성미의 주체와 그 성격이 “바이블 우먼”이라는 명칭으로 조선과 동질화된 재일선교의 장에서

27) 「신학세계」(1938년 5월호)

활약했던 여성전도사에 대한 사회적/남성중심적 규범과 시선에 의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성미의 정신인 자기희생은 본질적으로 모성애를 가지며 봉사를 좋아하는 여성이 성모 마리아와 같은 감화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여성의 주체적 자기희생과 헌신이 교회의 확장과 진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여성전도사와 여전도회, 성미로 연계되는 여성에 대한 자기희생의 강요, 혹은 여성자신의 자기희생에의 자발성은 “바이블 우먼”이라는 명칭과 그 계층적 지위가 제시하는 제한과 중첩되어 구조화되고 있다. 조선인 여성의 진정한 희생으로 표상된 “성미”는, 마리아(신앙)적 측면과 어머니라는 젠더적 측면이 상호보완작용을 하여 형성된 구조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미라는 신앙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신앙” 또한 구조화된 여성의 자기희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의미하는 재일 1세의 신앙적 자세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대표된 것은 그 ‘어머니’라는 단어에 이미 구조화된 여성의 자기희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양인 남성 선교사의 보좌역에서 출현한 여성전도사와 그녀들이 재일 선교의 장에서 “바이블 우먼”으로 위치되며 행했던 전도의 방식, 그 방식의 성과로서의 성미, 그리고 성미가 민족교회의 전통으로 계승되면서 “어머니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일컬어지게 된 일련의 과정에는 모두 이와 같은 여성이라는 젠더의 구조화된 자기희생이 공통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하다.

다음의 인용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어머니신앙”이 교회의 여성신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기술로서, 성미와 “어머니신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제시하며 또한 1920-30년대의 “바이블 우먼”과 오늘날의 “어머니신앙”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미쳤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하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성미라고 있잖아요? (중략) 1945년 패전 당시 저는 소학교 2학년이었는데, 패전 당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자루에 담은 쌀을 저녁거리가 없어서 울면서 그걸 다시 꺼내곤 했던... (중략)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 몰라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게 제 가슴 속에..., 역시 어머니신앙인거지요.<sup>28)</sup>

28) 1937년생 재일교포 2세의 여성. 재일교포 1세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재일대한기독교회 여성연합회의 사업인 노인 홈 건설에 40여 년간 봉사해왔다. 인터뷰는 2009년 7월 5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영화교회의 주일 예배 후 근처 커피숍에서 행한 것으로 그녀가 40여년에 걸쳐 노인 홈 건설 사업에 관여해온 경위에 대해 말하는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계승해야 할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고난과 역경 안에서 보인 신앙자세는 이렇듯 성미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 성미로 구체화되고 있는 “어머니신앙”은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던 재일교포의 생활사 안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그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담았던 성미는 고난과 역경 안에서 오직 신앙심으로 견뎌왔던 재일 교포 1세들의 희생을 의미하며, 이 희생이 “어머니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어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실질적이며 상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연상시키는 모성애가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인류애적 사랑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민족적 신앙공동체의 출발점과 기초로 적절한 조건을 갖출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조화된 여성의 자기희생 정신은 1920-30년대 재일교회 여성 지도자로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 “바이블 우먼”으로 명명되었던 여성전도사의 교회 내 위치/ 그 존재의 의미와 상통한다. 남성의 조력자로서 절대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여성이라는 계급질서 안에 머물면서, 성모 마리아와 같은 감화력과 본능적인 모성애를 발휘하여 교회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해야 하는 여성상으로 제시된 것이 “바이블 우먼”이라면, 이후 성미로 연계되는 민족교회의 “어머니신앙”이 제시하는 여성상 또한 같은 맥락 위에 위치한다. 이 여성들의 구조화된 자기희생이야말로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신앙”의 본질이며, 이 메타포가 위와 같은 형태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비가시화된 영역에서 신도 개개인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5. 나오기

본고에서는 1920-30년대에 재일선교의 장에서 활동했던 여성전도사에 주목하여 이 여성들의 존재와 그 위치를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신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가 민족적 자긍심의 근거로 제시하는 역사 안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존재에 주목하여 그녀들을 둘러싼 교회 내 젠더 질서의 형성과 “바이블 우먼”이라는 명칭 안에 함축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민족교회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가 공식 사료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장로교회 재일선교보고서 안에서 당시의 여성전도사들은 “바이블 우먼”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명칭으로 인해 재일선교의 장은 젠더적 구조에 있어서 조선과 동질화되며, 이는

“바이블 우먼”이라는 직분명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젠더적 전략성을 고려할 때 재일교회 내 여성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바이블 우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교회 내 젠더질서와 그 명칭에 내재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화된 희생의 강요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부인회의 전통인 성미로 구체화되는 “어머니신앙” 또한 여성의 구조화된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신앙”이 성미라는 신앙표현으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에서 명확해지며, 여기에서 재일 1세의 신앙형태가 다름 아닌 ‘어머니’로 표상된 이유가 설명 가능해진다. 일본사회 내에서 민족을 표방해온 본 교회의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일부로서, 신앙의 세대 간 계승을 특징으로 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신앙계승의 근거로 작용하는 개념인 “어머니신앙”의 내실이 성미에 내재된 젠더적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젠더적 장치인 “어머니신앙”에 주목하여 역사안의 여성인 바이블우먼과의 구조적 연계를 이끌어낸 본고는, 기존의 여성학적 논고의 한계를 넘어 오늘을 규정하는 재일교회 내부의 민족과 역사, 젠더적 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민족’에 편중되어 온 재일대한기독교회 및 재일 한국/조선인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주선애(1978) 『장로교 여성사』 대한예수장로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p.54.  
 「기독교신보」(1930년1월1일자)  
 「신학세계」(1938년 5월호)  
 「한국감리교회회보」(1934년10월)
- 송종인(2003)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 연구: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p.27
- 허연숙(2005) 「초기감리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 1885-1935」 숙명여대 석사논문. p.53
- 飯田剛史(2002) 「在日大韓基督教会における民族と人権」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世界思想社. p.263-304頁

- 宇治郷毅(1976)「戦時下の在日朝鮮人キリスト教運動」『福音と世界』新教出版社. p.53頁
- Wendy Chun(2006)「外国人宣教師の足跡」在日大韓基督教会関西地方会女性部主催  
『2006年度関西地方会女性部連続講座 宣教100周年に向けてのビジョン』p.17頁
- 呉寿恵(2009)「在日朝鮮基督教会の女性史研究」同志社大学大学院神学研究科博士論文
- 織田樞次(1977)『チゲクン—朝鮮・韓国人伝道の記録』日本基督教団出版社. p.130頁
- 咸美羅(2008)「教会における女性のミニストリー—在日大韓基督教会を中心に」関西学院大学大学院神学研究科修士論文
- 金賛汀(2010)『韓国合併と「在日」』東京:新潮社. p.38-41頁
- 外村大(2004)「全国および主要道府県における在日朝鮮人の職業の構成比」『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形成・構造・変容』緑蔭書房. p.83~84頁, p.91頁, p.93頁
- 中西尋子(2007)「民族と教会—在日大韓基督教会の事例」『宗教を理解すること』宗教社会学の会. p.50-79頁
- 日本基督教団中部地区愛知西地区靖国神社問題特設委員会編(1998)『愛知県下における「朝鮮基督教会」の歩み—戦時下を語る証言に聞く』在日大韓基督教会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 (RAIK). p.143頁
- 梁賢恵(1997)「在日大韓基督教会の歴史と神学」『アジアの宗教と精神文化』新曜社. p.369-386頁
- Annie Oakes(1915)“Woman’s in our mission station Korea” OMS. No.V. p.8.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29)“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60,p.61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0)“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102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1)“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52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2)“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67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1934)“Mission to Koreans in Japan” :The Act and Proceedings of The Fifty-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35
-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Toronto(1934) “The Glad Tidings”: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p.269
- Vinton.C.C(1893)“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k. JIX-9. p.671

## 要 旨

本稿は日本社会において「民族教会」と表象される在日大韓基督教会を対象に、当教会の“オモニ信仰”という概念に注目したものである。“オモニ信仰”とは、当教会が標榜する民族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わる概念として、信仰の先輩がすなわち自らの親に当る信仰の世代間継承を特徴とする在日大韓基督教会において、民族を表象する一つのメタファーとして‘オモニ’が用いられ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教会の中の不可視化された領域において巨大な力を発揮してきたオモニ信仰に注目すること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民族的な性格を理解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な要素である。

ここでは、教会の民族教会としての基盤がその長い歴史にある点に着目し、戦前のカナダ長老教会宣教協力期において、外国人宣教師たちによってバイブル・ウーマンと命名されていた女性伝導師の存在を浮彫りにする。それは朝鮮から由来するその名称とそれと関わる彼女たちの存在の意味、教会内の位置を分析することで、オモニ信仰の具体的な表現である「誠米」に内在するジェンダー構造を明確にするためである。女性の構造化された自己犠牲という誠米の基礎は、戦前の女性伝導師をめぐる考察から明らかになり、したがって、民族教会の“オモニ信仰”という概念に内在するジェンダー構造も明確にな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民族教会、オモニ信仰、バイブル・ウーマン、誠米、女性伝導師、  
女伝導会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